

조선후기 일본지식 생성자로서의 통신사 역관 연구*

정은영** · 한태문***

차 례

- | | |
|--------------------|-------------------|
| 1. 서론 | 3. 역관의 일본지식 생성 방식 |
| 2. 조선후기 통신사 역관의 역할 | 4. 결론 |

국문초록

조선후기 통신사가 남긴 기록에는 정치·경제·문학·과학기술·문자·출판·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정보와 지식이 실려 있다. 그리고 통신사행이 거듭될수록 정보의 탐색 영역은 확장되었으며, 축적된 정보는 방대해져 갔다. 이는 기록 주체의 학문적 성향이나 저술 목적 등에 따라 통신사행을 통한 일본 체험의 양상이나 지식을 수용하는 방식은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기간 일본과 빈번하게 교류했던 역관들은 다른 사행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본지식을 탐색하고 기록하였다. 우선 역관은 조선과는 다른 용어를 조선에 맞춰 개념화하고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어음을 달아 일본 현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고자 하였다. 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 태도로 일본을 바라보고자 했으며, 이미 알려진 일본지식도 다시 확인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더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통신사 역관은 단순히 일본에 관한 단순 사실이나 일본 서적을 구해서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통신사행록을 저술하여 일본지식을 생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주제어 : 조선통신사, 통신사 역관, 일본지식, 생성자, 객관적 태도

1. 서론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적 위상이 변하면서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충하여 조선 우위의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신사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조선은 국서 전달과 被擄人 刷還을 명분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이는 통신사 파견의 표면적인 이유일 뿐, 주목적은 일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지식을 확충하는데 있었다. 이를 목적으로 파견된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지식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자 노력했지만, 단기간의 일본 체류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일본지식은 한정적이었다. 이에 통신사는 자신의 견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탐색·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지식의 탐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역관이었다. 통신사 수행 역관의 임무는 단순히 三使를 수행하며 통역을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의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물과 서적을 구하여 조선의 지식인에게 전하는 등 조선의 정치·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수행 역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통신사 수행 역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¹⁾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역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²⁾를 비롯하여 통신사 역관 개별 인물이나 가문에 대한 조명³⁾, 역관이 남긴 통신사행록에 대한 연구⁴⁾ 등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조

- 1) 한태문, 『위향문인의 입술사행기 연구-〈동사록〉과 〈동사일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30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한태문, 『이언진의 문학과 통신사행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 제34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2) 김서란, 『조선후기 통신사수행 왜학역관 연구』, 『백산학보』 제71집, 백산학회, 2005; 심민정, 『조선후기 통신사 원역의 선발 실태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3, 한일관계사학회, 2005; 김양수, 『조선후기 왜학역관』, 『역사와실학』 37, 역사실학회, 2008; 양홍숙, 『조선후기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의 구성과 역할 - 장무관과 건량관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이상규, 『17세기 전반의 조일관계 전개와 왜학역관 제도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62, 조선시대사학회, 2012.
- 3) 이상규, 『조선후기 천령 현씨가의 역관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2004; 이상규, 『17세기 전반 왜학역관 강우성의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이상규, 『17세기 초중반 왜학역관 홍희남의 활동: 통신사 파견시 수행 역관 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김두현,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 41호, 동북아역사재단, 2013; 최차호, 『왜학역관 현덕윤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18호, 조선통신사학회, 2014.
- 4) 김일환, 『조선후기 역관의 여행과 체험 연구: 김지남 삼부자의 서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백옥경, 『입술사행록에 나타난 역관의 활동과 일본인식』, 『한국사상사학』 제26집, 한국사상사학회, 2006; 백옥경, 『역관 김지남의 일본체험과 일본인식: 『동사일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백옥경, 『역관 오대령의 일본인식: 『명사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8권, 조선시대사학회, 2006; 백옥경, 『역관 김현문의 일본인지-1711년 사행록 『동사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9권, 한국사상사학회, 2007; 손민희, 『역관 홍우재의 일본인식: 『동사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서수금, 『역관 이언진의 대외인식 고찰』, 『은

차도 통신사 수행 역관의 역할을 일본지식의 생성과 관련시켜 살핀 경우는 없었다. 최근 18~19세기에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살핀 연구⁵⁾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중인의 한 부류로 역관을 언급하거나 燕行을 다녀온 역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일본지식의 생성과 확산을 통신사 수행 역관과 관련시켜 살핀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을 중심으로 통신사 수행 역관의 역할과 일본지식 탐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일본지식 생성자로서의 역관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조선후기 통신사 역관의 역할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부터 일본 막부는 對馬島主를 통해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대마도주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측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조선을 둘러싼 대외적 상황은 좋지 않아 북으로는 後金이, 남으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재침략과 관련된 억측과 소문이 돌아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조정에서는 외교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거듭하였고, 1607년 여우길을 正使로 한 조선후기 첫 번째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신사를 파견하기에 앞서 선조는 비망기에서 전쟁 때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인을 쇄환하여 오는 것이 국왕으로서 자신의 책무임을 밝히며, 통신사의 명칭을

지논총』 28권, 온지학회, 2011.

5)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대동문화연구』 제6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진재교, 「18·19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정보의 메신저, 역관」,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回答兼刷還使’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를 파견하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실상은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당시 일본은 막부의 권력을 둘러싼 德川家와 豊臣家の 정쟁이 거듭되고 있었다. 일본 권력의 향배는 조선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조선후기 통신사는 일본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정보를 탐색하였다.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인은 물론 일본에 머물고 있던 중국인과 조선인 피로인 등과 만나거나 일본 서적을 구입하여 탐독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심지어 1636년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훈련도감의 군관을 통신사행원으로 선발하여 직접 일본의 지역 정보 등을 살펴보고 하였다.⁶⁾

그런데 이러한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지식 탐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역관이었다.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역관은 堂上譯官, 上通事, 小通事, 押物通事 등 20여명에 달했다. 이들 역관의 주요 임무는 通辯이었다.

역관을 시켜 玄方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왕명을 받들고 동으로 온 것은 다만 피로인들을 쇄환하는 한 가지 일을 위해서이니, 오직 그대들이 힘껏 주선해 줄 것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현방이) 곧 대답하기를, “전일에 이미 말씀을 들었으니, 어찌 감히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일의 형편이 전과는 조금 다르니,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힘을 다하여 도모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⁷⁾

6)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정보 탐색과 수집에 대해서는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41쪽 참조.

7) 강홍중, 『동사록』, 10월 10일(신해), “使譯官傳語玄方曰 吾等受命東來者 專爲刷還被擄人一事 專恃你等盡力周旋云爾 則答曰 前已承教何敢暫忘 但今日事勢與前稍異 似不容易 然當極力圖之”

1624년 갑자사행의 부사 강홍중은 역관을 시켜 以配菴 장로인 현방에게 통신사의 파견 목적은 피로인 쇄환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현방은 關白이 통신사의 피로인 쇄환에 적극 협조하라는 명을 내렸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역관을 통해 전하였다. 이렇듯 통신사 역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통신사와 對馬州 혹은 幕府 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참여하여 통역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은 司譯院 역관 중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자만을 선발하였는데, 특히 삼사의 통역을 담당했던 당상역관은 敎誨, 正, 교수, 御前, 훈도, 상통사, 年小聽誨의 소위 七事를 모두 거친 訓上堂上 중에서 선발하였다.⁸⁾

통변 외에도 통신사 수행 역관은 크게는 외교 의전의 일정을 조율하는 일에서부터 작게는 乾糧의 관리 등 사행 노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행원에 비해 쉽게 일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역관들이 여러 노정에서 말을 들으니, 모두 말하기를, “의성이 비록 통신사를 청해 왔으나, 결국에는 무사할 리가 없다.”라고 하였다. 일행의 사람이 사로잡혀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대략 서로 같아서, 모두 말하기를, “통신사가 비록 왔으나, 어찌 일마다 다 잘하겠는가? 의성의 생사는 이제 와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했다 한다.⁹⁾

역관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일본정보를 三使 등에게 보고하여 일본의 상황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1636년 병자사행은 표면적으로는

8) 김서란, 『조선후기 통신사수행 왜학역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9쪽.

9) 황호, 『동사록』, 11월 9일(기유), “譯官等聞諸道路之言 皆曰義成雖請信使來 必無畢竟無事之理 一行人聞諸被擄人之言 大略相同 而皆言信使雖來 安得每事盡善 義成生死 到今判矣云云”

일본의 태평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실제로는 對馬藩의 가신 柳川調興이 대마도주의 국서 개작을 폭로한 ‘柳川一件’과 관련이 있었다. 관백 德川家光은 재판을 직접 주재하여 국서 개작을 폭로한 조흥을 유배 보내고 실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대마도주에게는 통신사 파견을 조선 조정에 요청하게끔 하여 그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마도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역관들은 사행 노정 중 만난 사람들에게 ‘유천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대마도주의 지위가 여전히 위태로우며 통신사의 행보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역관들은 자신들이 탐문한 정보를 삼사에게 전했고 이는 이후 삼사가 일본 막부의 日光山 방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서전달을 위해 江戸에 머물고 있던 통신사는 일본 측으로부터 德川家康의 원당 東照宮이 있는 일광산 방문을 요청받는다. 합의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요구에 삼사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역관들이 전해주었던 일본 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천하명승지 유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광산을 방문하였다. 이처럼 역관이 수집한 일본정보는 통신사의 행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조정으로 전해져 대일본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역관은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일본지식을 활용하여 외교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선과는 다른 일본의 습속을 통신사행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만 예단 중에 보낸 衣領은 일의 형편을 보아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곧 홍희남이 답하기를, “그것은 일본의 國俗입니다. 관백이 천황에게 진상하거나 여러 장수 및 도주 등이 관백에게 바칠 때에도 반드시 의복

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단옷이나 수놓은 옷에 이르면 매우 존경하고 대단히 높이는 자리에 쓰는 것이오니, 그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는 비단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행의 여러 역관 중에서 일찍이 왕래했던 자는 물론 전일 피로인이었던 강우성·윤대선 등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고치게 한다 해도 말을 꾸미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¹⁰⁾

1636년 병자사행 때에는 일본 막부가 통신사행원에게 보낸 예단 중 삼사에게 노자로 보낸 온 물품과 의복이 문제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삼사가 거절의 뜻을 명확히 전해 일본 측에서 도로 가져갔다. 하지만 의복은 예물로 흔히 주고받는 비단과는 달라 선뜻 받을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었다. 이에 삼사는 역관 홍희남을 불러 의복의 처리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홍희남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난처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선 조정이 반드시 그를 보내 일을 해결¹¹⁾하도록 할 정도로 일본에 정통한 역관이었다. 실제 그는 1636년 병자사행 이전인 1624년 갑자사행에도 역관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삼사의 물음에 홍희남은 의복을 예단으로 주고받는 것은 일본의 국속이며, 존경하는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더하여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역관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여 삼사가 관련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역관으로서 본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본지식을 제공하여 일본 혹은 일본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비단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다.

10) 임광, 『병자일본일기』, 12월 28일(무술), “只以禮單中所送衣領 事體如何問之 則喜男答曰 此乃日本國俗也 關白之進上于天皇 諸將及島主獻于關白 必用衣服 至於錦衣繡衣 則極敬極尊處所用 其出於尊敬而斷無他意 非但小人知之 一行諸譯會已往來者 及前日被擄康遇聖尹大銑輩 無不知之 雖使改之 難於措辭云”

11) 『통문관지』 제7권, 「인물」 17, <홍희남>

내가 객관에 있을 때에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보았는데, 대개 御扇, 御筆, 御用紙, 御菓子라고 쓴 것이 많았다. 처음에는 매우 놀래어 돌려주려고 하였더니, 역관이 말하기를, “왜인의 습속이 이와 같고 본래 참람된 것이 아니라서 물리치고 고쳐 쓰고자 해도 이루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기에, 웃고 그대로 두었다.¹²⁾

1719년 기해사행의 제술관 신유한은 관소를 방문한 일본의 문사들이 보낸 선물에 ‘御’라는 글자가 붙는 것을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워했다. 조선에서 그 글자는 국왕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극존칭의 표현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유한은 받은 선물을 돌려보낼 생각을 하였는데, 같이 파견되었던 역관들이 조선과는 다른 글자의 의미와 쓰임새를 알려주면서 일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통신사 수행 역관은 이러한 정보 외에도 실제 일본의 기술이나 학문 성향을 알 수 있는 기물과 책을 구해 다른 사행원이나 조선 조정에 전하기도 하였다.

- 수역 박상순이 은자 5백 냥을 스스로 마련하여 阿蘭陀의 火矢 2柄을 사서 돌아가 조정에 바치려 한다고 들었다. 그것을 가져다 보니, 만듬새가 말아 놓은 족자와 같으나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였다. 그러나 軍官 이일제가 산 鐵箭 火具의 쓰임새와 사용법에 미치지 못하였다.¹³⁾
- 한양(서울)에 있을 때 伊藤維楨이 엮은 『童子問』을 얻어 보았다. 그 책은 오로지 程朱를 꾸며서 헛뜯고 터무니없는 말로 속이고 색다른 견해를 주로 삼았으며 스스로 공자와 맹자 이후로 홀로 聖學과 心法을 얻었다고 일렀다. 무릇 이런 연유로 역관들에게 구하게 하여 그가 저술한 『論語古義』, 『語孟字義』를 얻어 보았다.¹⁴⁾

12) 신유한, 『해유록』, 『부문견잡록』, “余在客館 見有所饋者 多書以御筆御扇御用紙 御菓子之類 初甚驚駭欲却之 譯官曰 倭俗如此 本非僭濫 却令改書 則不可勝改。因笑而置之”

13)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7월 1일(계미), “聞首譯朴尙淳自備五百銀子 買得阿蘭陀火矢二柄 將欲歸獻于朝廷云 取而見之 其製如卷簇子而甚堅剛 然似不及於軍官李逸濟所買得鐵箭火具之爲可用可法者矣”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으로 파견되는 통신사에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총의 구입이었다. 1607년 정미사행 때에는 역관 최의길 등이 大坂에서 조총 5백 자루를 구매 조선에 가져왔고, 1624년 갑자사행에서는 역관들이 일본에 조총이 유입된 내력이 적힌 『鐵砲記』와 같은 기록을 구해서 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관의 임무는 18세기에도 이어져 1747년 정묘사행의 당상역관 박상순은 조정에 바치기 위해 일본을 왕래하던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총을 구매했다. 또한 이전 통신사가 남긴 기록을 통해 일본의 학문 성장을 알게 된 후대 사행원들은 역관을 통해 일본 古學과 관련된 서적을 구하거나 관련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이처럼 통신사 수행 역관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일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삼사를 비롯한 다른 사행원들이 노정 상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외교 상대국인 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국가의 명이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서적이나 기물을 구하여 전하는 등 일본지식을 조선 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¹⁵⁾하였다.

3. 역관의 일본지식 생성 방식

일본에 한 번 파견되는 삼사와는 달리, 역관은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통신사로 차정되거나 대를 이어 사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일본지식이 역관 개인 또는 그 가계로 전승, 축적되었다. 무엇보다 역관

14) 홍경해, 『수사일록』, 4월 22일~4월 26일, “在京時得見日本人伊藤維楨所撰童子問 其書全以詆誣程朱 講張異見爲主 自謂孔孟以後 獨得聖學心法 低此因譯輩求見其所著述 得論語古義語孟字義”

15) 진재교, 『18-9세기 동아시아와 지식·정보의 메신저, 역관』, 『한국한문학회연구』 제 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112쪽.

은 문자를 자유자재로 읽고 쓸 수 있어야 하고 현지인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과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행원에 비해 깊이 있는 정보 탐색과 지식 생성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역관이 사행록 저술의 주체가 된 것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17세기 전반 통신사의 일본정보 탐색은 제한적이었다. 통신사를 배종했던 대마도주가 통신사행원과 일본인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일본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단속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신사 내부에서도 사행록의 내용이 일본에 전해져 외교적인 분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 사행원의 사적 기록을 엄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고 통신사의 파견이 일본 관백의 襲職과 若君 탄생에 대한 축하사절로 그 성격이 변모하면서 통신사의 일본지식 탐색과 수집도 비교적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삼사 외에도 製述官과 書記, 그리고 軍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분의 사행원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일본체험을 기록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역관 역시 단순히 일본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행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며 일본지식의 생성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더불어 17세기 통신사 수행 역관의 제도가 변한 것도 역관이 지식 생성의 주체로 나서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당상관 2원 모두 해당 학의 관원을 임명하여 보내는데, 康熙 임술년에 왜인들이 1원을 더 늘리기를 간청하였으므로 이에 3원을 두는 것으로 관례를 삼았다. ○ 왜인들은 ‘상상관’이라고 불렀다.

상통사 3원 그 안에 한학이 1원. ○ 전에는 모두 해당 학의 敎誨를 뽑아 임명하여 그 임무를 살피게 하였다. 강희 임술년에 相國 老峯 閔鼎重이 말하기를, “한학으로 이미 상통사를 삼았는데 그 직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여 이에 한학 1원과 해당 학의 2원을 법식으로 정하였다.¹⁶⁾

역관의 수를 늘려달라는 일본 측의 거듭된 요구에 조선 조정에서는 1682년 입술사행부터 수행하는 역관을 증원하였다. 2명이었던 당상역관의 수를 3명으로, 또 3명이었던 押物通事의 수를 4명으로 늘렸다. 역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지식을 탐색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도 확대되었다. 왜학역관의 경우, 통신사 이전에 問慰使로 일본에 파견되었거나 倭館에 근무하면서 만났던 일본인 인맥을 활용하여 일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682년 입술사행의 당상역관 홍우재나 1711년 신묘사행의 압물통사 김현문의 사행록을 보면 일본 노정 중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일본인과 술자리를 가지는 기록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는 물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일본의 기물이나 제도,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신사행에 참여하는 漢學譯官을 압물통사 1명에서 상통사 1명을 추가로 차정하여 총 2명으로 늘린 것 역시 역관이 일본지식을 생성하는 데 또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미 중국을 체험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키웠던 한학역관에게 통신사행은 연행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이국체험이었다.

소인이 장년일 때 십여 차례 연행을 갔었으나 근래에는 노모가 가로 막으셔서 가지 못한 지 이로부터 15년이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상중에 있다가 갑자기 이 임무를 맡으니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사행을 가야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미 왕명을 받았는데 싫어하고 꺼리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나이가 60을 넘었으니 (사행 참여가) 면제되어 가지 않아도 되오나 다른 것은 구애됨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을 보았고 지금 일본을 보게 되니 즐거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사람의 말을 물리치고 왔을 뿐입니다.¹⁷⁾

16) 『통문관지』 권6, 「교린 하」, <통신사행>, “堂上官二員 並以該學官差送 而康熙壬戌 倭人請加一員 仍以三員爲例○倭人謂之上上官 上通事三員 內漢學一員○在前 並以該學教充差察任 康熙壬戌老峯閔相國 以爲漢學既以上通事見差 而不行其任 不可 仍以漢學一員該學二員定式”

1763년 계미사행의 상통사 오대령은 당시 63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떠났는데, 통신사행 이전에 이미 13차례나 중국의 北京, 瀋陽, 鳳城을 다녀왔던 한학역관이였다. 오대령은 이전 15년 간 노모의 병환으로 사행을 떠나지 않았던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한다면 일본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대령은 이미 내려진 왕명을 받들기 위해 통신사 수행 역관으로 참여했으며, 일본으로 떠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 즉 ‘쾌사(快事)’라고 하였다. 통신사행을 즐거운 일로 받아들인 한학역관 오대령의 일본체험은 외교업무를 전담하던 왜학역관과는 다른 차원의 체험이었음을, 그렇기에 그가 보고 싶어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대상이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통신사행에 중국어 담당의 한학역관을 함께 파견한 것은 일본 내에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어가 가능한 일본인을 통해 새로운 일본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조선 조정의 의도에 따라 회담 겸쇄환사가 파견되었던 17세기 초에는 중국 南京과 일본 長崎를 오가는 중국 상인들이 통신사가 머물고 있던 관소에 찾아오기도 하였는데, 이때 이들을 만나 응대하는 것이 한학역관의 주요 업무였다. 그리고 통신사행원과 일본 지식인 간의 만남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17세기 후반부터는 한학역관이 직접 일본인과의 필담창화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일본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식을 생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외교상대국의 언어에 능통했던 왜학역관이나 중국의 선진문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한학역관이 탐색한 일본정보와 지식은 그 대상도, 이해하는 방식이나 관점에서도 삼사, 제술관이나 서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17) 오대령, 『명사록』, 11월 29일(임오), “小人年壯時十餘次赴燕 而輒近爲有老母絕而不行者十五年于茲矣 不意草土之餘 猝當此役無願代者 勢出無奈 且旣當王事 厭憚不行義 所不出 永減之下年踰六十 無他拘碍 旣見北京 今見日本 似爲快事 故排衆議而來耳”

1)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의 추구

조선 내에서 유통되는 일본지식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통신사행원들은 전대 사행원이 남긴 기록을 숙지하거나 휴대한 채 사행에 참여하였고 직접 사행록에 수록된 다양한 지식을 확인·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일본지식을 축적해 나갔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안정되기 전인 17세기 중반까지는 통신사의 지식 탐색 대상이 일본의 정치·경제·군사 등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탐색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지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전 사행원이 남긴 기록을 그대로 復記하기도 하였다. 특히 오랑캐 일본을 교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통신사행원들은 조선중화주의로 무장한 채, 일본의 문화와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가 안정되면서 이전에 비해 자유로운 일본 탐색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더하여 일본인과의 문답이 용이했던 역관들은 전대 사행에 비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水陸의 먼 길을 오갈 때에 동행하였던 사람들이 바빠 쫓아와 이별의 아쉬움을 겉으로 나타내니 이것 역시 인정이라. 이별의 슬픔 깨닫지 못하였다. 10리 정도 가서 피차의 배 위에서 이별하였는데, 처음 올 때의 예와 같았다. 주인과 손님이 평복을 입었다. ○ 동료의 기록에는 공복을 입었다고 썼는데,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¹⁸⁾

1682년 임술사행의 당상역관 홍우재는 자신들과 사행노정을 함께 했던 일본인과의 이별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그 인정스러움에 감동한 마음

18) 홍우재, 『동사록』, 10월 27일, “萬里水陸 去來同行者 奔走來聚 外示惜別 是亦人也 不覺依黯 行到十里 彼此船上之別 一如初禮主客平服○同僚之記以公服書之未知孰是”

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이별의 순간에 통신사행원과 전송하는 대마도주 등이 어떤 복식이었는지를 적었는데 이때 홍우재는 자신과 동료의 기록이 상이함을 들어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아주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통신사 수행 역관이 일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탐색했고 지식으로 생성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는 현재의 행동과 복식 등이 이전의 사행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외교적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 사행의 前例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통신사 특히 역관은 지식의 정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역관들이 추구한 지식의 정확성은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역관은 일본인이 사용하는 용어를 되도록 그대로 쓰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식 한자어였다.

- 모두 관사에 들어가니, 잠시 있다가 振舞 올리기를 청했다. 모든 음식은 왜관에서 보던 것과 같은데 더욱 공손하고 삼가는 행동이 있었다. 禁徒倭들이 관사 안팎으로 다니면서 밤새 철딱따기를 쳐서 潛商을 막는다. 배가 머물고 있는 곳 역시 그러하였다. 이후에도 모두 이와 같이 했다. 부산에서 佐須奈浦까지 4백 80리다. 振舞는 곧 奉盤이다.¹⁹⁾

- 이른 바 手斗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2승 반에 준한다. 당상역관을 상상관이라 이르며, 역관, 군관, 의관, 사자관, 화원을 상관이라 이른다. 伴尙 이상은 차관이라 하고 노자 이상을 중관이라 이르며 선군과 격군을 하관이라 이른다.²⁰⁾

조선과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이

19) 김지남, 『동사일록』, 6월 18일(갑오), “齊入館所 有頃請呈振舞 諸般飲食 一如倭館之見 而尤有所敬謹之舉矣 禁徒倭人等 繞館內外 達夜擊柝 以防潛商 停船處亦然 後皆倣此 自釜山至佐須奈浦四百八十里振舞即奉盤也”

20) 김현문, 『동사록』, 7월 초8일(을미), “所謂手斗 准我國二升半也 堂上譯官謂之上上官 譯官軍官醫寫畫員謂之上官 伴尙以上謂之次官 奴子以上謂之中官 舡格謂之下官”

질적인 요소가 많았다. 때로는 그러 이질적인 점이 통신사행원의 눈에 오랑캐의 문물로 비쳐지기도 하였다. 그런 만큼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일본지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과는 확연히 다른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 그 중 하나였다. 통신사행록에는 일본 측에서 베푸는 접대나 宴享을 ‘振舞’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단어는 일본어 ‘振(る)舞い’에서 온 것이었다. 1617년 정사사행의 부사 이경직과 1624년 갑자사행의 부사 강홍중은 이 단어를 잔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나, 김지남은 이를 조금 다르게 개념화하여 설명하였다.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 이미 왜관에서 일본 代官의 접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김지남은 어린 소년들이 적은 양의 음식을 정갈한 상에 받치고 왔던 것을 기억하고는 진무를 ‘작은 (음식)상을 갖다 바친다’는 의미로 ‘奉盤’이라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전대 사행에서는 ‘食邑’이나 ‘湯沐邑’과 같은 단어로 설명되었던 관백의 직할령 ‘藏入’을 관백이 필요한 물품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의 의미로 ‘內需屯田’으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이런 조선식 개념화는 관백이 조선의 왕과 달리 조세권만 가진 관리라는 사실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다.

한편 조선과 일본이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도량형도 있었다. 1711년 신묘사행의 압물통사 김현문은 일본에서 지급한 日供의 항목과 수량을 자세하게 제시하며 조선에서는 쓰지 않는 ‘手斗’에 대해서 조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여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와는 다르게 쓰는 관직명을 하나씩 밝혀졌었다. 이외에도 역관들은 일본에서의 사행 노정 중 藩主가 사행원에게 선물하는 과일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겼다. ‘枝梯’가 곧 꽃감이고 ‘九年母’가 굴이라는 점을 작은 글씨로 부기하는 등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먼저 제시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하였다. 즉 조선과는 다른 한자어의 쓰임을 그대로 기록하되, 그것을 조선식으로 개념화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조선에는 없는 음식이나 기물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곧 당상관이 탈 乘物方言의 '老里毛老'로 우리나라 屋轎와 비슷한데, 긴 나무 하나를 위에 가로지르고 두 사람이 앞뒤에서 어깨로 메니 이른바 懸轎 및 員役 이하가 탈 말 70여 필이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²¹⁾

김지남은 일본 측에서 당상역관에게 제공한 가마 형태의 乘物을 보았는데, 조선의 옥교나 현교에 빗대어 직접 보지 않은 조선인도 그 모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특히 역관들은 일본식 한자어나 기물의 이름에 일본어음을 한자로 표기하여 그 소리까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이런 경향은 일본의 지명이나 인명을 기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사행록을 읽을 후대 통신사행원들을 위한 배려이자, 정확한 일본지식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역관들은 수집한 일본지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통신사 수행 역관들은 일본인에게 들은 정보를 들은 그대로 기록하거나 해당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언급하되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 듣건대 태수의 아버지 松平新太□는 나이가 많아 강호에 옮겨가서 살고 있다. 대개 글을 잘 짓고 재주가 많으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다고 한다. 불교를 일체 금하였는데 무릇 여러 불상을 모두 부수어 강에 던져 버렸으며, 자기 지역 내의 중들을 다른 지방으로 쫓아 버렸다고 한다. 유학을 숭상하여 道를 배우며, 詩書를 암송하고, 3년 상을 상하에게 모두 똑같이 치르게 했다고 한다. (중략) 關白이 그를 매우 후하게 대하게 되어 나라 안에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한다고 말하였다한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시서에 능한 자는 곳곳에 있어 장차 文翰이 크게 일어 나리라고 한다.²²⁾

21) 김지남, 『동사일록』, 6월 24일(경자), “則堂上所乘乘物方言老里毛老有似乎我國屋轎而一杠綴於上兩人前後肩之所謂懸轎也及員役以下所乘鞍馬七十餘匹 整待岸上”

● 禁徒 利左衛門 등이 그것(개 모양의 돌)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옛날 京都의 공사를 할 때 석물은 모두 여기에서 취했는데, 이 돌도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만 명의 힘으로도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부들이 화가 나서 돌의 머리를 때렸더니 귀 끝이 조금 깨지면서 피가 흘러내리므로 모두 이상히 여겨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서 보면 이목구비와 발톱까지도 지극히 분명하게 보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비록 허황하기는 하지만, 들은 대로 기록한다.²³⁾

1682년 입술사행의 당상역관 홍우재는 牛窓에 머물며 지역 관련 정보로 肥前太守 源綱政의 아버지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당시 德川幕府는 상하의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수용,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유학자조차도 부모의 상·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를 정도였는데, 비전태수의 아버지는 이를 혁파하고자 하였다. 홍우재는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유교를 숭상하는 당시 일본 내의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비전태수 아버지와 같이 학문에 능한 사람이 일본 곳곳에 있어 장차 일본의 학문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사실도 기록하여 지식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확성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아님을 밝히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견지하려 했다. 같은 맥락에서 동일 사행에 참여했던 김지남 역시 우창 근처 섬과 관련하여 내려오는 신이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자신은 허황되게 생각하지만 일본인들이 믿고 전하는 것이라 다만 들은 대로 기

22) 홍우재, 『동사록』, 7월 21일, “聞太守之父松平新太□ 年老 傳往在江戶矣 蓋善文多才 孝友至矣 切禁佛法 凡諸像撤破投江 境內僧尼 驅逐他鄉 崇儒學道 誦法詩書 三年之喪 上下共之 (中略) 關白遇之甚厚 一國皆曰 有德者必興非獨此人能通詩書者處處有文翰將興云矣 ”

23) 김지남, 『동사일록』, 7월 21일(병인), “禁徒利左衛門等指之曰 昔於京都立役之日 石物都取於此處 而亦欲運致是石 督其萬夫之力 而終不運動 役夫怒擊其頭 耳尖小缺 有血滲流 衆皆驚異而置之 卽今近而觀之 耳目口鼻足爪之類極其分明云 斯言雖誕 略記所聞”

록한다고 밝혔다. 역관 김지남에게 이야기의 허황됨은 일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은 채 그저 일본 특정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식이었을 뿐이었다.

한편 통신사 수행 역관들은 일본지식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도 그것이 가진 兩價性을 인정하거나 특정 속성이나 부분에 한정하여 평가를 하였다.

- 大君의 從祖 水戶侯의 문하에는 의사나 화공·점쟁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여러 나라 말에 유의해서 조선·琉球·安南·暹羅 등의 말을 통역하는 사람을 각각 따로 모아 거처하게 하고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중략) 공물사신이 다닐 때는 倭語를 아는 자가 따라야 하고 통신사에게도 漢學을 아는 通事가 따르게 하는 것은 곧 조정에서 깊이 생각하고 원대한 계획에서 나온 일이다. 水戶라는 왜인이 통역하는 사람을 양성한 것도 역시 여기에 뜻이 있어서였던가? 다만 公事로 하지 않고 사사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²⁴⁾
- 그 제도나 모양을 보니 심하게 이상하지 않고 예가 있다고 여겨졌다. 다만 민머리에 맨발, 검은 옷을 입을 때에는 바름과 멀었다. (중략) 정해진 시간에 이르러서는 질서를 잃거나 문란한 폐단이 없었다. 무릇 모든 사물을 만드는 일에 우리나라 사람의 미칠 바가 아니었다.²⁵⁾

김지남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을 만나 水戶侯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厚待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주변 국가와의 무역에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것이 또 통역인력을 양성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24) 김지남, 『동사일록』, 8월 21일(병신), “大君之從祖水戶侯門下 多有醫師畫工方術之類 而尤留意於諸國言語 轉譯朝鮮琉球安南暹羅等語之人 並皆處以別館 厚廩尊奉 (中略) 貢使之行 解倭語者隨之 信使亦帶漢學通事 此乃朝廷之深思遠見也 水戶倭之培養重譯之人 其亦有見乎此耶 但不於公而於私 則未知其可也”

25) 오대령, 『명사록』, 2월 27일(기유) “觀其制樣不甚異常似有禮 只迥勝於光頭跣足着黑衣時也 (中略) 臨時無失序紊亂之弊 凡百做爲之事 非我人之所及也”

조선 조정에서 연행에 왜학역관을, 반대로 통신사행에 자신과 같은 한학역관을 보내는 사실과 연관시켜 그 긍정적인 면을 다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 양성이 국가나 막부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비슷한 시각에서 오대령 역시 일본의 제도나 기술, 질서 의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맨살을 드러내는 것이나 검은색 옷을 입는 것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오대령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倭館에서 이루어진 접대 자리에서 일본인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때도 오대령은 비록 일본인들의 의복은 괴이하고 언어는 제비가 지저귀는 것 같으나, 그들의 모습이 조선인과 별반 다르지 않고 揖禮 역시 중국과 흡사하다고 기록했던 터였다. 일반적으로 맨발과 문신, 黑齒 등은 조선인에게 오랑캐적 습속으로 여겨져 일본인을 비하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오대령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차이로 기술하였으며 오히려 조선이나 중국과 비슷한 점도 함께 기술하여 관련 지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역관의 이러한 면모는 사행 노정 중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미시 말에 간신히 겸예의 포구에 이르렀는데 조수가 여울같이 밀려와 사람의 힘으로 배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피차의 모든 선박이 서로 응답하며 닻을 내렸다. 그러나 종사관은 홀로 중론에 따르지 않고 노꾼들을 격려하여 북을 치며 세 번 나아갔으나 물의 힘에 회전하며 배를 제어할 수 없었다. 저들의 배가 황급히 구하러 달려갔다가 우리 배에 부딪쳐 선체가 다 부서졌다. 이러한 참혹한 광경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닻을 내렸으니, 처음 중론을 따른 것만 같지 못했다. 재차 고했으나 듣지 않다가 이런 곡절을 만나니 한탄해도 소용없다.²⁶⁾

26) 홍우재, 『동사록』, 7월 18일, “未末僅到鎌刈浦口 潮亂如灘 不可以人力運船 彼此諸船 相應下碇 而從事道獨不從衆 大少力櫓 鼓噪三進 爲水頭之回衡 不能御船 彼船皇皇趨救 爲我船所觸 盡碎船艦 見此景像而後 始覺下碇 初不如從衆之爲愈也

사행 노정 중 조선과 일본의 갈등이 표출되는 지점은 바로 발행의 시기를 정하는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국서를 전달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삼사와 국내적 상황이나 날씨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려는 대마도주 사이에서 의견 대립은 종종 일어났다. 그래서 일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을 강행하거나 항구에 정박하려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사행록에서는 통신사의 잘못을 언급하기 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대마도주의 계략이나 일본 측의 무능함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역관들은 사행단 내부의 문제도 가감없이 기록하여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잘못을 평가하고 이후 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통신사 수행 역관은 일본 혹은 일본인을 대할 때 ‘일본=오랑캐’, ‘조선=중화’라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나 일본의 기물이나 사람, 발생한 사건 등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고 기록하였다. 즉 일본인 전체가 오랑캐적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듯 조선인이라고 해서 모두 문명인은 아님을 기록하는 등 조선과 일본을 단순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또한 역관들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평가에 치중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일본지식을 추구했던 역관의 기록들은 일본을 다시 보는 한편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 기존 지식의 확인과 내용의 확충

전대 통신사행록을 숙지하고 사행에 나선 사행원들은 기존의 일본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을 살폈다. 그래서 이전의 기록은 일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존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개별 통신사행록은 사행원 한 명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 기록된 일본지식은 전·후대 사행원이 함께 만들어

再告不用遭此曲徑恨莫及矣”

낸 공동의 것이었다. 통신사 수행 역관 역시 통신사행록의 전통적인 글 쓰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기록을 나눴다.

- 下와 瀨 두 섬 사이에 이르니 겨우 거룻배를 다닐 만한데, 왜사공이 ‘靈神이 있는 곳’이라 하여 뱃사람들에게 소리 내지 못하게 하였다. 사당이 벼랑의 돌 위에 있는데, 住吉神의 사당이라 하였다.²⁷⁾
- 瀨戶의 포구 가에는 돌문이 있는 오래된 사당이 있는데 곧 효자 住吉의 사당이다. 옛날에 왜인 주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모친이 이곳에서 돌아가시자 그가 곡을 하며 매우 슬퍼하자 바닷물이 붉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역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사당을 세웠는데 영험함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한다.²⁸⁾

조선후기 통신사는 사행 노정 상 머물게 되는 지역 정보를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1617년 정사사행의 종사관 이경직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일본 지도가 잘못 그려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상록』에 이 사실을 밝힌 후, 일본 지역 정보는 통신사행원이 중요하게 탐색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익히 알려진 지형물이나 이미 지나온 경유지, 주변의 기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食祿의 규모나 관백과의 관계를 들어 일본 내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아울러 그 지역이 임진왜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이러한 지역 정보가 일본의 재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통신사가 기록한 지역 정보에는 지명유래담도 있었다.

통신사행록에 등장하는 瀨戶는 약 1,000여 개의 섬이 흩어져 있고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여 큰 소용돌이가 발생하기도 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사공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住吉神의 사당에 안

27) 김세렴, 『해사록』, 10월 11일(임오), “至下瀨兩島之間僅能容舳 倭沙工以爲靈神所住 令船人不得出聲 祠在崖石上 云是住吉神廟”

28) 김현문, 『동사록』, 7월 18일(을사), “瀨戶浦邊 有石門古祠 乃孝子住吉祠也 昔有倭人住吉者 嘗哭母於此 哭之甚哀 海水爲赤 故土人憐之立祠 素著靈驗云”

전을 위해 기도를 하였는데, 그것이 통신사의 기록에도 남아 있었다. 1636년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일본의 사공이 영험한 신을 모신 곳이라며 사당을 향해 행동을 삼가는 것과 그 사당에 주길신을 모시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후 통신사행원들은 뇌호를 지날 때 주길신의 사당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1682년 임술사행에서는 김지남은 주길신을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에게 그 까닭을 물었고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본래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어 궁금해 했다. 그런데 김지남의 아들 김현문이 1711년 신묘사행에 역관으로 참여하면서 사당에 모셔지는 주길이 효자였는데 그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자 바닷물이 붉게 변해 사람들로 부터 영험한 신으로 모셔진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로써 전대 통신사의 기록에서 야기되었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었다. 이처럼 역관들은 사당의 존재만 기록하였던 기존 지식에 지역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덧붙여 관련 지식을 확충시켜 나갔다.

이런 방식의 지식 확인은 비단 지역 정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국제무역 역시 역관에 의해 동일한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에 도착한 후 통신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일본의 풍부한 재화와 항구에 가득 한 외국의 商船이었다. 大坂으로 향하던 1607년 정미사행의 부사 경섭이 일본을 오가는 南蠻의 무역선에 대해 기록을 남긴 이후 일본의 국제 교역,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중국의 상인이 드나들던 長崎는 통신사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 倭京에서 나올 때에 중국인 7-8명이 관광하는 사람 사이에 있으므로, 그들에게 물으니 장사하러 늘 長崎에 왕래하여 혹 몇 년을 객지에 머물며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장기는 상선이 몰려드는 곳이다.²⁹⁾
- 關白은 무역으로 이익을 일으키는 것을 일로 삼으니 이에 따르면

29) 강홍중, 『동사록』, 1월 17일(병인), “自倭京出來時 唐人七八立於觀光人中 問之則以賣買常常往來於長崎 或數歲留連而不返云 長崎卽商船輻湊處也”

長崎 등의 섬에 별도로 代官을 정하여 두고 중국 사람들의 物貨를 교역 하여 밀천은 놓아두고 이익을 거두어들여 사사로이 축적하였다. 執政 이하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투어 본받으므로 집의 재물이累巨萬인 사람이 매우 많았다.³⁰⁾

1624년 갑자사행의 부사 강홍중은 京都에서 만난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의 상선이 長崎를 왕래하며 양국 간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일본에 파견된 사행원들은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을 통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 수 있었다. 1655년 을미사행의 종사관 남용익 역시 사행록 『부상록』에 장기를 “中原商舶來泊處”라고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견별록』에는 關白에 의해 무역의 이윤이 독점된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그 예로 장기를 들었다.

• (정)창주가 “長崎에는 일 년 간 몇 척의 중국배가 오고 얼마나 많은 날을 지체합니까?”라고 해서 明敬이 답하여 이야기하기를 “장기에는 일 년에 7, 80척의 중국배가 오고 3, 4월 사이에 왔다가 12월에는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장기에는 오래된 規矩가 있어 일찍 오면 일찍 돌아가고 늦게 오면 늦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2월에 이르면 모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였다.”³¹⁾

1711년 신묘사행의 상통사 정창주는 江戸에서 太學頭 林信篤 문하의 岡島冠山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중국의 백화소설을 번역할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났던 망도관산을 만난³²⁾ 정창주는 교역 중심

30) 남용익, 『문견별록』, 『풍속』, “關白質販興利爲事 如長崎等島 別定代官 交易漢人 物貨 存本取利 以爲私蓄 執政以下 至於下賤 爭相慕效 故家貲累巨萬者甚多”

31) 『계림창화집』 권3, “昌周 長崎一年來多少唐船 耽閣幾多日子 答設曰口談明敬 長崎一年來七八十隻唐船 三四月間來了 十二月回唐 長崎有個舊規矩 來早的早回去 來遲的遲回去 所以直都十二月 便都回唐去了”

32) 구지현,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서, 2011, 170-171쪽.

지로서의 長崎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전대 사행록을 통해 장기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익히 알았던 정창주는 장기를 왕래하는 중국의 상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머무르는지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역과 장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비록 정창주가 별도의 사행록을 저술하지는 않았지만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역관들이 어떻게 기존의 일본지식을 확인했고 관련 내용을 보충했는지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확충은 때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天皇과 관백이라는 이원적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 天皇의 자녀는 모두 승려가 되어 절에 흠어져 사는데, 다만 만아들은 천황의 자리를 잇는다. 그들의 혼인은 존귀하기가 비할 데가 없는 까닭에 그 일족을 벗어나지 않는데, 오직 지금의 관백이 천황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전례가 아니라고 한다.³³⁾

- 여러 중들이 모두 불당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나이 어린 중 하나가 있어 흰 비단옷을 입고 홀로 불당 위에 앉아서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일행 중의 여러 왜인들이 몸을 굽히고 빨리 달려가는데 자못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일행 중 통역하는 왜인에게 물으니 곧 답하기를 그는 지금 天皇의 아들로서 大佛寺 主僧이 되어 절 안 妙法院에 있다고 했다.³⁴⁾

조선후기 통신사행원들은 일본 내에서 수천 년간 최고의 지배자로 군림했지만 정치적 실권은 없는 천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천황이 있는 京都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알현은 받지도 못한 채 통신사

33) 황호, 『동사록』, 11월 18일(무오), “天皇子女 并爲僧尼 散處寺刹 只長子承襲 其婚娶以尊貴無比 故不出其族 惟今關白娶天皇之女 非前例云”

34) 김지남, 『동사일록』, 9월 26일(임신), “諸僧舉皆下堂跪伏 而有一少僧着白綾衣 獨坐於堂上。晏然不動 行中諸倭 鞠躬趨走 頗有畏敬之心 問之於行中通詞倭 則答以今天皇之子 爲大佛寺主僧 居於寺內妙法院者云”

행렬을 그저 구경만 하는 천황을 향해 ‘假天皇’, ‘山城主’라고 불렀다. 특히 제사를 주관하는 천황의 임무와 그 자식들이 불교에 귀의한다는 사실은 천황에 대한 통신사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켰다. 1636년 병자사행의 종사관 황호는 황위를 계승하는 장남을 제외한 천황의 자식이 승려가 된다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 후 파견된 통신사행원들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록을 계속해서 남겼다. 그러다 임술사행에 이르러 역관 김지남이 대불사에서 천황의 아들을 직접 보고는 기존 지식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719년 기해사행의 제술관 신유한이나 1763년 계미사행의 서기들이 또 다시 관련 사실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려가 된 천황의 아들을 ‘法親王’이라 부른다는 점, 천황의 법은 佛祖와 같다는 내용을 더해 조선에 전했다. 이는 천황이 비록 정치적 실권은 잃었으나 일본인들에게 ‘종교적 지도자’, ‘정신적 영도자’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새로운 일본지식이었다. 즉 역관 김지남의 정보 확충이 천황과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역관들은 전대의 통신사가 남긴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기도 하였다. 1636년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이 復命을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학문 성장 가능성을 국왕 인조에게 아뢰고 이후, 통신사행원들은 더 많은 일본 문사와 교류하며 일본 학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1682년 임술사행에子弟軍官으로 파견되었던 홍세태는 본래 한학역관으로 일본인과의 필담창화에 적극적이었다.

- 滄浪子が 부채와 먹을 내와서 두 아이들에게 주었다. 琴軒에게는 파란 부채를 주었는데 쓰기를 “공자도 석가도 (기린이) 친히 안아다 주었는데 둘은 천상의 麒麟兒로세.”라고 하였다. 石溪에게는 하얀 부채를 주었는데 쓰기를 “장부가 이 두 아이만한 아들을 낳기만 한다면 명성과 지위가 어찌 낮고 하찮은 데에 그치겠는가.”라고 하였다.³⁵⁾

35) 任公定, 『任處士筆語』, “滄浪子出扇及墨 以與二兒 琴軒青扇 書曰 孔氏釋氏親抱

● 무릇 일본 수천 리의 땅에 어찌 인재 한 명이 없겠는가. 나는 일찍이 동행하며 수창할 때 너그럽고 대범한 말을 할 수 없어 일본인에게 비웃음을 살까 경계하였다. 저들이 나와 교제할 때에는 겉으로는 마치 공경하고 삼가는 것 같았으나 속으로는 곧 깊이 살펴 사신이 돌아감에 이르러서는 문장의 좋음과 나쁨,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논평하여 책으로 만들어 그 나라 안에 전하여 전파하지 않음이 없었다. 내가 불민하여 진실로 그것을 면하지 못했을까 두려우니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면 진땀이 나지 않은 적이 없다.³⁶⁾

홍세태는 일본의 儒官이었던 人見友元의 아들인 琴軒과 石溪, 조카 野元浩를 직접 만나 그 文才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나이가 각각 13세, 12세, 14세였다. 학식과 문재가 있는 일본의 소년 문사를 본 홍세태는 일본의 학문이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홍세태는 1711년 신묘사행의 제술관으로 차정된 이현에게 혹시라도 필담창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까 염려하며 일본의 문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간곡히 전하였다. 홍세태 이후 1719년 기해사행의 제술관 신유한, 1763년 계미사행의 제술관 남옥과 서기 성대중·원중거 역시 일본 문사와 교유를 하며 일본 학문의 발전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 그러나 저들의 문학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 좇으며 옆에서 몰래 비웃는 자가 없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무릇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랑을 했으니 능히 부끄러움이 되고, 지엽적인 것에 빠져 그 스스로 지켜야 할 바를 잃었으니 경박한 일이요, 허물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두루 드러냈으니 졸렬한 것이다. 세 가지 모두를 범함이 이와 같으니 그것을 나라를

送 並是天上麒麟兒 石溪白扇 丈夫生兒有此二雛者 名位豈肯卑微休”

36) 홍세태, 『유하집』 권9, 「서」, <送李重叔往日本序>, “夫以日本數千里之地 而豈無一人 余故嘗飭同行唱酬之際 不可爲誕率語 以取笑於遠人 彼接我也 外若敬謹 內則深察 及使歸 文之佳惡 人之長短 無不評論爲書 傳布其國中 以余不敏 誠恐其不免 至今思之 未嘗不汗出也”

빛냈다고 이르는 것이 가한가. 생각할수록 회한이 매우 크다. 글을 써서 후배의 경계로 삼는다.³⁷⁾

계미사행의 서기 원증거는 4, 5세에 붓을 잡아 10여 세에 이미 시를 지을 수 있는 일본인을 두고 총명하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을 “해중 문명의 고을”이라 칭하였다. 특히 성대중은 일본 내 사행 경유지 곳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일본 문사들과 창수를 하며 그 소회를 글로 남겼다. 성대중은 사행 노정에서 지은 시는 부끄러운 것이요, 혹은 좋은 작품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문재를 자랑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평하며, 현재 일본 문사의 실력이 뛰어나므로 후대의 통신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한편 기존 지식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을 더하는 과정에서 전대 사행원과는 다른 시각으로 일본 체험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마도주가 통신사를 위해 베풀었던 연회였다.

- 이날 雜戲를 베풀었는데 종일토록 하였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떠들어대었고 잡회를 하는 자들은 저마다 기예를 선보였다. 비록 융숭한 예절이지만 귀와 눈에 미치지 못하니 그 잡스럽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³⁹⁾
- 戲子를 베풀었는데 이른 바 戲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광대나 중국의 환술과 같은 종류로 그 나라의 융숭한 예절이었다.⁴⁰⁾
- 뜰 앞에 새로 넓은 집을 지어 광대들의 잡회를 베풀었다. 이른 바

37) 성대중, 『일본록』, <書東槎軸後>, “然彼中文學 非昔日之叱 安知無從傍竊笑者也 夫夸於不知者 以爲能恥也 驚於枝 失其所自守佻也 出其 而徇諸人拙也 三者吾皆犯之如是 而謂之華國可于 思之悔恨甚矣 書爲後輩之戒”

38) 정은영, 『『일본록』에 나타난 대일지식 생성 연구』, 『어문학』 제122집, 한국어문학회, 2013, 490쪽.

39) 작자미상, 『계미동사일기』, 7월 19일(경술), “是日設雜戲 終日爲之 鼓笛喧轟 戲者各呈技藝 雖云盛禮 耳目不及 其爲雜亂不欲觀”

40) 남용익, 『부상록』, 10월 28일(무인), “且設戲子 所謂戲子者 如我國倡優中國幻術之類 而其國之盛禮也”

<高砂>라는 것은 곧 지명이다. 옛날에 한 사람이 노부인과 함께 이곳에서 살았었는데, 그 가면을 만들어 獻壽하고 경하하는 형상이다. 이른바 <葵上>이라는 것은 한 宮娥가 있었는데 투기가 심하여 夜叉로 변하였기 때문에, 이 희극을 공연하여 풍속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략) 막간에는 원숭이가 각종 재주부리는 놀이를 하였는데, 자못 우리나라의 놀이와 비슷하였다.⁴¹⁾

위험한 해로와 육로를 거쳐 강호에 도착한 통신사를 위로하기 위해 대마도주는 연회를 베풀었다. 하지만 원숭이 놀이, 마술 등의 잡희로 구성된 대마도주의 연회는 조선과는 상당히 달라 오히려 통신사행원에게는 고역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통신사행록에는 연회와 잡희를 보았다거나 이것이 일본의 융숭한 대접이라는 단순 사실만이 기술되어 있었다. 심지어 1643년 계미사행에 참여했던 사행원은 자신에게 생소하게 다가왔던 연회에 대해 보고 싶지 않다고 평할 정도였다. 하지만 역관 김현문은 대마도주가 공연을 위해 만들었던 무대부터 광대들이 연행했던 잡희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이질적이라고 했던 잡희 중에서 조선의 놀이와 유사한 것을 들며 기존에 전해졌던 지식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김현문은 관백의 연향에서 만난 新井白石으로부터 일본의 演戲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특히 그때 보게 된 舞樂의 근원이 당악과 고려악이라는 사실⁴²⁾과 조선의 文武와 비슷하다는 점 등 일본 연회와 조선과의 관계를 밝혀 적었다.

이처럼 외교 상대국의 언어에 능통하거나 해외 경험이 풍부했던 통신사 수행 역관들은 일본인과의 문답, 필담창화 등을 통해 이전 기록에 남

41) 김현문, 『동사록』, 2월 13일(병인), “庭前新構廣廈 設戲子雜戲 所謂高砂 卽地名古有一人與老妃居此地 造其假面 作戲壽慶賀之狀 所謂葵上 有一宮娥 甚妬 化作夜叉 故設此戲警俗云 (中略) 間設能狢猱猿梯山 伏首引之戲 頗似我國優戲”

42) 백옥경, 「역관 김현문의 일본인식-1711년 사행록 『동사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2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7, 240-241쪽.

겨진 일본정보와 지식을 하나씩 확인하고 때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였다. 또 기존에 누락되었던 내용이 확인되면 관련 사실을 확충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본지식이 축적되어 갔다.

4. 결론

조선후기 통신사가 파견된 횡수는 200여 년 동안 단 12차례에 불과하였지만, 적은 파견 횡수에도 불구하고 다종의 통신사행록이 저술되었다. 통신사행록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정보는 정치·경제·문학·과학기술·문자·출판·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통신사행이 거듭될수록 정보의 탐색 영역은 확장되었으며, 축적된 정보는 방대하였다. 또한 그 기록 주체가 三使와 서기에서부터 역관과 군관, 기선의 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사행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기록 주체의 학문적 성향이나 저술 목적 등에 따라 대상을 기술하는 방식, 체재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 권의 사행록 안에서도 일본 도착, 혹은 일본 인과의 만남을 전후로 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통신사행을 통한 일본 체험의 양상이나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은 균일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역관은 사대부인 삼사와 그 계층이 달랐으며, 같은 중인계층이었던 제술관이나 서기와는 통신사행 내에서의 직분과 위치가 달랐다. 그러므로 역관이 관심을 가진 대상과 사행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행원역과 동일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일본과 빈번하게 교류했던 역관들은 조선과는 다른 일본식 용어를 조선에 맞춰 개념화하고 조선인에게 익숙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 일본어음을 달아 일본 현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고자 하였다. 또 화이론이라는 기존의 이념적 잣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일본지식도 다시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더해 관련 내용을 풍부하게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선후기 통신사 역관은 일본의 서적이나 단편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지식 생성자로서 활약하였다.

역관이 생성한 일본지식은 조선의 지식인에게 전해져 현재 일본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통신사행에 앞서 연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한학역관들은 일본에서의 견문을 중국과 비교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일본정보는 동아시아 내에서의 조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자기 반성적 인식과 새로운 학문 경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지식인의 학문 경향과 사회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관들이 탐색하고 생성한 일본지식의 조선 내 유통에 대해서 고찰해야 하는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홍중, 『동사록』
김세렴, 『해사록』
김지남, 『동사일록』
김현문, 『동사록』
남용익, 『문견별록』
성대중, 『일본록』
신유한, 『해유록』
오대령, 『명사록』
임광, 『병자일본일기』
작자미상, 『계미동사일기』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홍경해, 『수사일록』
홍우재, 『동사록』
황호, 『동사록』
국역 『통문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구지현,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구지현 역주, 『한사수구록·임처사필어』, 보고사, 2013.
구지현·임채명 역주, 『계림창화집』, 보고사, 2014.
- 김두현,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 41호, 동북아역사재단, 2013, 299-355쪽.
김서란, 「조선후기 통신사수행 왜학역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67쪽.
김양수, 「조선후기 왜학역관」, 『역사와실학』 37, 역사실학회, 2008, 71-124쪽.

- 김일환, 「조선후기 역관의 여행과 체험 연구: 김지남 삼부자의 서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108쪽.
- 백옥경, 「임술사행록에 나타난 역관의 활동과 일본인식」, 『한국사상사학』 제26집, 한국사상사학회, 2006, 233-273쪽.
- _____, 「역관 김지남의 일본체험과 일본인식: 『동사일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169-198쪽.
- _____, 「역관 오대령의 일본인식: 『명사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8권, 조선시대사학회, 2006, 127-162쪽.
- _____, 「역관 김현문의 일본인지-1711년 사행록 『동사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9권, 한국사상사학회, 2007, 211-246쪽.
- 서수금, 「역관 이언진의 대외인식 고찰」, 『온지논총』 28권, 온지학회, 2011, 33-60쪽.
- 손민희, 「역관 홍우재의 일본인식: 『동사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51쪽.
- 심민정, 「조선후기 통신사 원역의 선발 실태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3, 한일관계사학회, 2005, 73-121쪽.
- 양홍숙, 「조선후기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의 구성과 역할 - 장무관과 건량관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111-151쪽.
- 이상규, 「조선후기 천녕 현씨가의 역관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2004, 197-239쪽.
- _____, 「17세기 전반 왜학역관 강우성의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101-141쪽.
- _____, 「17세기 초중반 왜학역관 홍희남의 활동: 통신사 파견시 수행역관 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233-272쪽.

- _____, 「17세기 전반의 조일관계 전개와 왜학역관 제도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62, 조선시대사학회, 2012, 251-296쪽.
- 정은영, 「『일본록』에 나타난 대일지식 생성 연구」, 『어문학』 제122집, 한국어문학회, 2013, 461-497쪽.
- _____,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211쪽.
- _____, 「회답검쇄환사의 일본정보 탐색 연구」, 『겨레어문학』 54호, 겨레어문학회, 2015, 233-265쪽.
-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대동문화연구』 제6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81-112쪽.
- _____, 「18·19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정보의 메신저, 역관」,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105-137쪽.
- 최차호, 「왜학역관 현덕운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18호, 조선통신사학회, 2014, 97-146쪽.
- 한태문, 「위향문인의 입술사행기 연구-〈동사록〉과 〈동사일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30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195-214쪽.
- _____, 「이언진의 문학과 통신사행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 제34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41-60쪽.

<Abstract>

A study on a Tongsinsa interpreter as the
creator of Japanese knowledge in late
Joseon Dynasty*

Jeong Eun-young** · Han Tai-moon***

The records left by **Joseon** missions to Japan in the latter period **Joseon** Dynasty include various Japanese information and knowledge ranging from politics, economy, literature, science and technology, text, publishing and industry. As the visits of **Joseon** missions to Japan continued, the search area of information expanded and the accumulated information became vast. This is because the way of experiencing Japan and accepting the knowledge of Japan through **Joseon** missions to Japan was not equal depending on the academic tendency or the writing purpose of recorders.

In particular, the interpreters who had frequently interacted with Japan for a long time searched and recorded the knowledge about Japan in different ways from other duty entourage. First of all, the interpreters tried to conceptualize different Japanese terms from **Joseon** language in accordance with **Joseon** language and to use Japanese terms correctly by giving the reading of Japanese characters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2017 Post-Doc. Development Program』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Joseon** language. They also wanted to look at Japan with a neutral and objective attitude, and double-checked already known information about Japanese and enrich the contents. So, the interpreters of late **Joseon** Dynasty did not just carry out their role of simply delivering facts about Japan or bringing Japanese books, but moved on to generate the knowledge about Japan by writing achievements records.

Key Words: **Joseon** missions, a **Tongsinsa** interpreter, **Japanese knowledge, the creator**, objective attitude

■ 논문접수 : 2018년 11월 11일

■ 심사완료 : 2018년 12월 1일

■ 게재확정 : 2018년 12월 7일